



외교부

일일 국제에너지·자원 동향

에너지과학외교과(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)

2022.2.14.(월) Vol. 2022-22호

[문의 : 02-2100-8474(8475), gecc@mofa.go.kr]

【광물자원】

□ 페루 푸노 지역 리튬 탐사 추진 동향(주페루대사관)

- 캐나다의 아메리칸 리튬社(American Lithium)는 자회사 마쿠사니 옐로우케이크社(Macusani Yellowcake)를 통해 페루 푸노(Puno) 지역의 마쿠사니 광산 탐사 작업을 추진중임.
 - 마쿠사니 옐로우케이크社는 2017년 예비 탐사를 통해 마쿠사니 광산에 약 243만톤의 탄산리튬과 3.4만톤의 우라늄 매장량을 확인
 - 2021.9월 탐사 및 채굴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페루 정부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출('21.7월), 페루 정부가 동 내용을 검토중
 - ※ 탐사권 허가 신청 전 환경영향평가 승인 및 지역공동체와의 토지사용계약 완료 필요
- 페루는 동, 은, 아연 등 주요 광물 생산국이나,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은 현재 생산하지 않고 있어, 푸노지역에 매장된 리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.
- 그러나, 최근 심화되고 있는 광산기업과 지역공동체와의 사회적 갈등, 우라늄 개발 관련 법 제도 불비 등으로 실제 탐사작업 착수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 - 페루는 우라늄 사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, 우라늄 등 방사성 광물 개발을 위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. 2018년 미국 정부가 페루의 우라늄 및 리튬 개발을 위해 방사성 광물개발 법제화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였으며, 2019년 페루 정부 또한 2020년까지 법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,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은 부재한 상황
 - 또한, 동 광산의 잠재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노천광산 등 타 광산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채굴과정에서 우라늄 원소의 붕괴로 인한 방사선 위험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술도 필요

□ 짐바브웨, 2021.11월 니켈 수출 157% 증가(주짐바브웨대사관)

- 짐바브웨통계청(Zimstat)에 따르면 2021.11월 니켈 광물광석과 농축물 수출이 전년 대비 157% 증가하여 9,070만 달러를 기록, 전체 수출량의 14%를 차지함.
 - ※ 광물은 전체 수출량의 29.8% 차지
- 한편, UN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짐바브웨의 니켈 수출액은 9억 8,527만 달러를 넘어섰고, 올해 니켈 수요량은 전년 대비 4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/끝/